방일영문화재단

제 46 호
2021.12. 31

www.bangfound.org

The Bang Il-young Foundation Newsletter

"제자들 꿈을 지원하는 교사로 남고 싶다"

2021년 제19회 '올해의 스승상' 시상식

'2021년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박미화(대구 가창초), 권순학(인천 덕적중), 박영란(김해 관동초), 정호근(서울 보성고), 정해경(증평초 병설유치원), 한동규(당진 합덕중) 교사.

올해의 스승상

방일영문화재단과 교육부, 조선일보사가 공동 제정·시상하는 '2021년 올해의 스승상' 시상식이 12월 16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편집동 조이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올해의 스승상은 제자 양성과 교육 발전에 헌신해 사회의 귀감이 되는 교사들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에 제정한 상이다. 이날 6명의 선생님들이 수상해 2002년 첫 수상자를 배출한 이래 지금까지 233명의 선생님이 이 상을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과 상금 2000만원이 수여됐다. <4면에 계속>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중회 2022년도 신년회 및 정기총회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발행인 조연흥 편집인 유광선 기획·편집 리윤커뮤니케이션 발행처 재단법인 방일영문화재단 0451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0 Tel 724-5041~2 Fax 724-5049 e-mail biyf@chosun.com

김일구 명창, 제28회 방일영국악상 수상

판소리, 아쟁산조, 가야금산조, 작창, 창극에 두루 능한 예인

조연흥 재단 이사장이 김일구 명창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우리 국악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방일영국악상이 올해는 김일구(金一球 · 81) 명창에게 주어졌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인 김일구 명창은 판소리는 물론이고 아쟁산조, 가야금산조 등 기악부터 작창 및 창극에 이르기까지 전통예술 각 분야에 두루 능한 예인으로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국악의 대중화와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제28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명창은 1960년 공대일 선생으로부터 흥보가를 사사했고, 이후 장월중선 선생으로부터 심청가와 아쟁산조를, 원옥화 선생으로부터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성우향 선생으로부터 심청가와 춘향가를, 박봉술 선생으로부터 적벽가를 사사했다. 주요 수상경력은 1983년 제9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대통령상), 1985년 제3회 경주신라문화제 기악특장부 장원(대통령상), 1991년 KBS 국악대상, 2012년 제22회 동리대상 등이다.

국악 집안으로 70여 년을 이어온 국악 인생

조연흥 재단 이사장은 11월 25일 오후 5시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시상식 인사말을 통해 "김 명창은 부친인 고 김동문 명창을 비롯해 부인 김영자 명창과 아드님, 며느님 모두 국악을 하시는 국악 집안으로 70여 년을 이어온 선생의 국악 인생은 우리 현대 국악의 산증인이며, 선생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우리 국악이 면면히 이어지고 발전되어가고 있다고 본다"며 공로를 치하했다.

심사위원장인 한명희 이미시문화서원 좌장은 "폐부를 훑어버리는 아쟁산조를 들어보거나 흥부가와 같은 판소리 한 대목이라도 들어본다면 긴 탄성과 함께 비탄의 심연이나 악흥의 도가니로 빠져들지 않을 재간이 없다"며 "심사위원 일동은 촌지의 이견없이 김일구 명인명창을 수상자로 결정했다"며 선정한 배경을 밝혔다.

전통음악의 큰 스승

서연호 고려대 명예교수는 축사에서 "김 명창은 아

역대 수상자, 심사위원,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 재단 조연흥 이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축하연에서 '광대가' 한 대목을 열창하는 김 명창

제28회 방일영국악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일구 명창이 수상 직후 부인 김영자 명창과 함께 인사를 했다.

축하연 단막극 춘향전 중 '어사상봉막'에서 열연하는 (좌로부터) 어사 역의 김 명창의 아들 김도현, 향단 역의 며느리 서진희, 월매 역의 부인 김영자 명창

쟁산조의 명인, 판소리의 명창, 창극 배우로 모두 일가를 이룬 전통음악의 큰 스승"이라며 "멈출 줄 모르는 도전 정신과 탐구력, 열정적인 끈기는 국악계의 사표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명창은 수상 소감에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대대손손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판소리와 산조라는 전통이 있다. 스승들께 물려받은 소중한 전통을 후배들도 이어가라"고 당부했다.

1부 시상식에 이어 2부 축하공연에서는 국악의 멋과 흥을 한껏 즐길 수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역대 수상자인 이생강(12회)·김영재(22회)·이재숙(24회) 명인과 심사위원인 한명희 선생, 윤미용 전 국립국악원장, 김정수 용인대 명예교수, 김영운 국립국악원장이 참석했다. 내빈으로는 윤주영 전 문공부 장관, 이종식 전 국회의원, 안병훈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 정병헌 전 숙대 교수, 유영대 국악방송 사장, 김중채 임방울국악진흥회 이사장, 이만우 동리문화사업회 이사장, 김세종 한국음악학 박사, 윤중강 국악 평론가 등이 자리를 빛냈으며 재단 이사인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 김문순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이영선 통일과나눔재단 이사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 올해의 스승상 심사위원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면에서 계속> 영예의 수상자는 정해경(59 · 증평초 병설유치원), 박미화(49 · 대구 가창초), 박영란(61 · 김해 관동초), 권순학(59 · 인천 덕적중), 한동규(43 · 당진 합덕중) , 정호근(50 · 서울 보성고) 교사 등 6명이었다.

유치원 교육과정 개선과 교원 전문성 향상에 공헌한 정해경 교사는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육 발전을 위해 더 헌신하라는 상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끈 박미화 교사는 "문화 예술 교육으로 학생들의 마음에 다가갔다"고 했다.

소외 계층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40년간 교수 · 학습법 연구와 수업 혁신에 힘써온 박영란 교사는 "아이들 스스로 배움에 눈을 뜨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한길을 걸어왔고, 내일도 변함없이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다.

덕적도 학생들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끌어올리고 교과와 지역사회를 연결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권순학 교사는 "교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좋은 교사가 되자고 다짐했고 '나는 프로야. 아마추어가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프로 교사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 읍 · 면 학교에서 줄곧 교사로 근무하며 창의적 융합 교육을 펼쳐온 한동규 교사는 "교단에 선 이후 지금까지 만나온 제자들이 이 상을 준 것 같다. 첫 마음 변치 않고 계속 제자들 꿈을 지원하는 교사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발명가이자 과학 교사로서 수많은 제자를 발명가로 키워온 정호근 교사는 "과학자와 공학자가 돼 다양한 연구와 창업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더욱 성장해 세계를 이끄는 인물들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선생님들께서 베풀어오신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정성,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교육을 새로운 미래 교육으로 열어가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은 인사말에서 "선생님들은 우리 교육을 지탱하는 초석이자 희망이며, 교육이 기본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인재 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올해의 스승상 심사위원장인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조연흥 방일영문화재단 이사장,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 모임인 '한올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 공적

연극놀이 수업 방식 개발

정해경 증평초 병설유치원 교사

유치원 어린이의 초등학교 입학 초기 적응을 돕는 교육 자료를 공동 개발했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실시간 원격 강의 등을 통해 유치원 교사들에게 수업 노하우를 전했다. 그림책을 통한 생각 펼치기, 협력적 놀이를 통한 신체 표현, 동화책을 활용한 연극 놀이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개발해 공유했다.

소외된 학생들에게 예술교육

박미화 대구가창초 교사

특수학교 장애 학생과 일반 학교 학생들이 협력해 미술 작품을 완성하고 장애 학생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비장애 학생들이 불러주는 음악 활동을 통해 소통과 화합에 기여했다. 수업 전반에 문화예술교육을 반영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웠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키우도록 이끌었다.

새내기 교사들에게 학습법 노하우 전수

박영란 관동초 교사

40년간 학생들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초등학교 교수 · 학습법 연구에 힘썼다.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설계와 분석에 집중했고, 이를 새내기 교사들에게 전하기 위해 연수 강사 등으로 적극 참여했다. 학급 경영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 학교 현장 개선에 기여했다.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힘써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공헌했다.

섬마을 방과 후 학교 활성화

권순학 덕적중 교사

섬마을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방과 후 학교’를 개설했다. 학생들이 살고 있는 덕적도에 대한 애향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덕적군도 알리기 프로젝트’를 마련해 덕적도의 문화유산과 환경 등을 체험하도록 지도했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식사를 마련하는 프로그램,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활동 등을 운영했다.

증강현실 콘텐츠 활용 수업

한동규 합덕중 교사

농촌 지역 학교에서 16년간 근무하며 내실 있는 수업에 힘써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는 데 공헌했다. 탐구실험 중심의 참여형 과학 수업으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이끌었고 디지털 교과서와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혁신에 기여했다. 과학 · 미술 · 음악 등 교과 융합 수업 모델 개발과 적용에 앞장서며 창의성 교육에 힘썼다.

과학 발명 동아리 전국 대회 휩쓸어

정호근 서울 보성고등학교 교사

20여 년간 과학발명동아리 ‘사이노베이터(Scinovator)’를 이끌며 과학 및 발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했다. 이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이 전국 규모 다수 수상을 하였고 해외에서도 수상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전국의 학생들에게도 교육 나눔을 실천했다.

이영선 재단 이사, '통일과나눔' 재단 이사장 취임

이영선 이사

이영선 재단 이사가 지난 4월 29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지난 2015년 '통일과나눔' 재단 창립 후 재단을 이끌어왔던 안병훈 전 이사장(도서출판 기파랑 대표)은 5월 말 퇴임했다.

허익범 전 드루킹 특검,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허익범
서중회 5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서중회 5기 허익범 전 특별검사가 지난 11월 16일 천고법치문화상 제13호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허 전 특검은 "국가가 검사 일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했기에 열심히 증거를 찾고 분석하고 과거를 재구성하고 법정에서 증거가 하는 말을 빼놓지 않고 모두 전달하는, 검사로서 배운 일을 했을 따름"이라며 "평범한 변호사로 재출발하며 믿을 수 있는 법조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을 제정한 천고법치문화재단은 제20대 법제처장을 지낸 송종의 이사장이 법치 문화를 알리는 목적으로 2014년에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서중회 39기 강준석, 10회 변호사 시험 수석 합격

강준석
서중회 39기

서중회 39기 강준석 씨가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강 씨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와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방상훈 이사(조선일보사 사장) 프리야다르시니상 수상

재단 이사인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이 9월 20일 저널리즘과 언론 자유에 기여한 공로로 제37회 프리야다르시니 아카데미 글로벌 어워즈 '프랄라드차브리아 기념상'을 받았다.

프리야다르시니 아카데미는 인도 뭄바이를 기반으로 설립돼 활동 중인 사회문화교육단체다.

그동안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미국 경제학자 제프리 색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이 이 상을 받았다.

국립국악중 · 고교에 장학기금 2억2천만 원 기부

재단은 지난 12월 15일 국립국악중 · 고등학교에 장학기금 2억2천만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앞서 재단은 1999년에 1억 원, 2003년에 1억5백만 원, 2007년에 1억 원, 2013년에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어 장학기금은 총 6억2천5백만 원으로 늘어났다. 국립국악중 · 고교는 그동안 받은 장학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과실금으로 매년 환경이 어려운 15명의 중 ·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재단 유광선 사무국장(오른쪽)과 국립국악고등학교 함유정 교감이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학기금을 전달받은 국립국악고등학교 함유정 교감(교장직무대행)은 "장기간의 은행 이자율 하락으로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오늘 추가로 전달받은 장학기금으로 걱정을 덜게 되었다"며 "방일영문화재단에서 받은 귀한 장학기금을 우리의 전통문화인 국악을 이어나갈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소중히 관리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제29회 임방울국악제 방일영賞 최잔디 씨

재단이 협찬하는 제29회 임방울국악제 결선 무대가 10월 4일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려 판소리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에는 이경아 씨, 우리 재단이 수여하는 최우수상인 방일영상에는 최잔디 씨가 뽑혔다.

방일영상을 수상한 최잔디 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하며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현재 모교인 국립국악고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는 "다시 소리 공부에 매진해서 언젠가 대회 대상에 재도전하는 것이 꿈"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상 이경아 씨

방일영상 최잔디 씨

일제강점기 민족의 한을 소리로 달랬던 임방울 명창의 예술혼을 기리는 이 대회는 명창부, 일반부, 학생부 총 122명에게 1억8000만 원을 시상하는 국내 최대 국악 경연대회다.

제38회 최은희여기자상에 KBS 이소정 기자 수상

"100년전 최은희 선생께서 후배 여기자 위해 디딤돌"

왼쪽부터 이근백 추계문화사업회 부회장, 윤호미 최은희여기자상 심사위원장, 이소정 기자, 안병용 추계최은희문화사업회장, 김문순 최은희여기자상 운영위원장

재단이 후원하는 제38회 최은희여기자상 시상식이 9월 15일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열렸다. 올해 수상자는 KBS 뉴스9 앵커 겸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이소정 기자가 상을 받았다.

이 기자는 2003년 KBS에 입사해 사회부와 국제부, 경제부, 탐사제작부 등을 거쳤다. KBS 뉴스9 첫 여성 메인 앵커로 여성 언론인의 역할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취재기자로서 시사기획 창 특집 '조선학교-재일동포 민족교육 70년', 멕시코 반군지도자 인터뷰 등을 보도해 기획 탐사 보도의 모범을 보였다.

이 기자는 "100년 전 최은희 선생께서 디딤돌을 놓아주시고 이후 많은 여기자 선배들이 용기를 주신 덕에 저도 감히 덤벼본다"며 "한계를 두지 말라고 등 떠밀어준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수상자인 KBS 이소정 기자가 김문순 최은희여기자상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상패를 받고 있다.

우리 재단은 상금 1500만 원을 지원했다.

당초 시상식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조선일보사 세미나실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열렸다.

제 12기 탈북장학생 8명 선발

재단은 12월 3일 제12기 탈북장학생 8명을 선발했다.

이로써 2010년부터 선발된 탈북장학생은 모두 115명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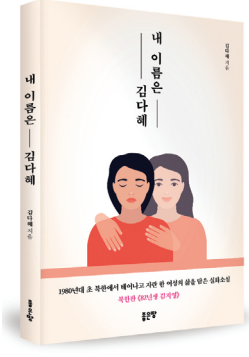
탈북대학생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했으나 대다수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두세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생활이 되는 어려운 형편으로 학업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재단은 이들 가운데 생활이 매우 어렵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아르바이트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들은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였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 졸업 때까지 일정액의 생활보조금을 매월 지급한다.

선발된 장학생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성(서강대 사회과학계열) ▷김신우(홍익대 법학부) ▷김유리(중앙대 사회복지학부) ▷박시은(한국외대 중문학과) ▷이미연(고려대 사회학과) ▷장하빈(이화여대 정외과) ▷채윤서(동국대 회계학과) ▷한나(국민대 중국학부)

*일부 학생은 북한에 남은 가족 · 친지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

탈북장학생 김다혜 씨 실화 소설 펴내



우리 재단 제6기 탈북장학생인 김다혜 씨(이화여대 국문학과 4년)이 1980년 초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여성의 삶을 담은 실화 소설을 펴냈다.

김 씨는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으로 함경북도 상업간부학교 졸업 후 상업관리소에서 9년간 회계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2년 중국을 거쳐 입국했다.

이 책은 김 씨가 유년기 시절 겪었던 임수경 방북사건(1989년)과 김일성 사망사건(1994년).

청소년기에 겪었던 정주영 소 떼 방북사건(1998년)과 제1차 남북정상회담(2000년).

그리고 20대 청년기에 겪었던 북한 핵 실험(2006년)과 북한의 화폐개혁(2009년) 등 한반도 현대사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쳤는지를 당시 직접 겪었던 연령대의 관점에서 상기 사건들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제49기 방일영장학생 15명 선발

재단은 11월 12일 제49기 방일영장학생 15명을 선발해 발표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과도한 성적하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등록금 전액과 매월 소정의 생활보조장학금이 지급된다.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새로 선발된 장학생들은 아래와 같다.

강지유
(고려대 경제학과)

권하영
(서울대 인문계열)

김가희
(연세대 경영학과)

김응범
(고려대 경영학과)

김태령
(서울대 경영학과)

김한성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박상현
(연세대 경제학부)

손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송민경
(서울대 경영학과)

이정현
(연세대 경영학과)

장민선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장현수
(서울대 경영학과)

조민준
(서울대 철학과)

조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최혁중
(서울대 경영학과)

2021년 방일영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방일영장학회 2021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7월 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종전에는 매년 초 2월에 수여식을 가져왔으나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행사이다.

이날 수여식에는 학부장학생 13명과 탈북장학생 9명 등 22명의 새로운 방일영장학생이 참석해 증서를 받았다.

조연흥 재단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그간 보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다"면서 "우리 장학회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장학회이며 훌륭한 선배들이 사회 각계에 진출하여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여러분 모두 선배들에 이어 장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탈북장학생들에게는 일일이 북한의 고향 등을 묻고 격려도 해주었다.

수여식을 마친 뒤 유광선 사무국장은 재단 소개와 앞으로의 주요 일정 등을 알려주었다.

2021년도 언론인 저술지원 대상자 27명 선정

상반기에 16명, 하반기에 11명

【 2021년 상반기 저술지원 대상자 】

김식
(일간스포츠 스포츠팀장)

김장춘
(명지대 연구교수)

김종영
(경인방송 편성제작팀 PD)

김태은
(전 뉴시스 전문기자)

박순욱
(조선비즈 선임기자)

신용관
(조선뉴스프레스
기획취재위원)

오상준
(국제신문 편집국장)

오정환
(MBC 뉴스데이터팀 부장)

이경희
(전 코리아헤럴드 주필)

이서현
(동아일보 오피니언팀 기자)

이영훈
(채널A 선임기자)

이은주
(서울신문 편집국 차장)

이하원
(조선일보 국제부장)

이한수
(조선일보 여론독자부장)

임도혁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이사장)

한성윤
(KBS 스포츠제작부 기자)

재단은 전 · 현직 언론인과 언론학자가 대상인 2021년도 저술지원 대상자를 상반기에 16명, 하반기에 11명을 각각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이들에게는 각 7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1년 이내에 책을 내야 한다.

【 2021년 하반기 저술지원 대상자 】

강석훈
(KBS 통일외교부 기자)

고재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남태우
(부산일보 선임기자)

류현정
(조선비즈 기자)

오인환
(연세대 명예교수)

이재훈
(뉴시스 문화부 기자)

이종각
(전 동양대 교수)

장일현
(조선일보 국제부 차장)

조상범
(조선영상비전 부장대우)

탁재택
(KBS 정책전문위원)

호준석
(YTN 2TV 국장)

재단 글꼴 공모전 역대 수상자 3인 인터뷰

"폰트 디자인은 끝이 아닌 시작"

우리 재단이 지원하는 한글 글꼴 창작 공모전 역대 수상자인 디자이너 임진욱(정조체로 수상), 이새봄(새봄체로 수상), 이주현(범나비체로 수상) 씨가 10월 5일 한글날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각각 제2회(2006), 제4회(2013), 제7회(2021) 수상자인 이들은 "폰트 디자인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했다. 폰트는 디자이너로서 이들의 최종 작품인 동시에 신문, 책 같은 인쇄 매체나 시각 디자인 작업의 기본 재료가 된다는 의미다.

한글 글꼴 창작 공모전 역대 수상자인 (왼쪽부터) 이주현, 임진욱, 이새봄 씨.
아래 서체는 왼쪽부터 '범나비체' '정조체' '새봄체'

임진욱 씨는 "본문용 폰트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 이주현 씨는 "익숙함과 새로움 사이에서의 고민"이라고 했다.

이들의 작품을 보면 '좋은 재료'가 되기 위해 오늘날 한글 본문용 글꼴이 지향하는 방향이 드러난다.

옛 필사본에서 영감받아

"'휘언'이라는 옛 필사본을 보다가 질감이 독특한 글씨를 발견했어요. 흘려 쓴 한글인데 붓글씨와 다르고 알파벳에 가까웠죠. 그 느낌을 살려 고딕도 명조도 아닌 한글 반흘림체를 디자인했습니다."(이주현)

붓글씨 느낌 살려 디자인

"명조체라는 본문 폰트를 보면서 날렵하고 조금 덜 따뜻한,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적합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붓이라는 도구의 느낌을 살려서 명조보다 따뜻한 느낌의 서체를 만들었죠"(이새봄)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하려는 시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에 최적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던 시점에 수상한 임진

욱 씨의 '정조체'는 디지털 기기 화면을 염두에 두고 만든 글씨체다.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디지털 화상을 이루는 최소단위)은 네모꼴"이라며 "글씨의 직선적인 면이 강조되면 화면에서도 명쾌하게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다.

한글과 라틴 알파벳을 바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한글은 알파벳에 비해 본문용 글꼴이 다양하지 못한 게 사실이나 최근 변화의 조짐이 있다.

이새봄 씨는 "모바일에 알맞은 부리(획 끝의 작은 꺾임) 계열 서체, 단편 선에 어울리는 글씨체가 따로 나온다"면서 "사용 환경이나 글의 내용에 맞게 본문 서체가 점점 세분화하는 중"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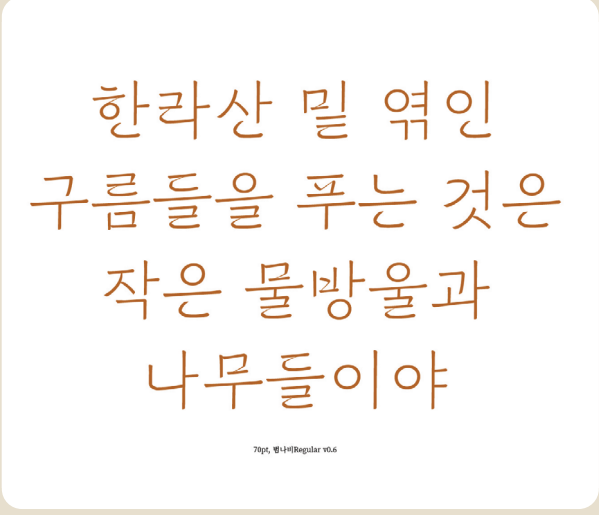
임진욱 씨는 "본문용 서체는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한글 글꼴 디자이너들이 용기를 가지고 과감한 시도를 하고, 사용자들도 익숙해지다 보면 한글 글꼴이 점차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조선일보 채민기 기자)

제7회 한글창작글꼴 지원 수혜자 이주현 씨 선정

재단이 후원하는 한글창작글꼴 지원금 제7회 수혜자로 이주현 씨가 선정되어 지난 7월 서울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에서 지원금 수여식을 가졌다.

지원금 2000만 원을 받게 되는 이 씨는 서울여대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스튜디오A와 윤디자인연구소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했었고, 현재는 프리랜서 타입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선정된 글꼴은 범나비체로 명명되었고, 한글의 전통적인 반흘림궁체의 질감을 모티브로 타입 세팅 시 안정적인 판독성과 신선한 텍스처를 가지고 현대적인 미감과 조형을 갖춘 서체이다.

제15회 방일영국악상 수상자 정철호 선생 별세

제15회 방일영국악상 수상자인 정철호 선생이 지난 10월 27일 별세했다.

고 임방울 명창에게 소리를 배우면서 판소리에 입문하였고, 고 김재선 선생에게 고법을 전수 받아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보유자로 지정받았다.

선생은 아쟁 산조의 창시자이자 명 고수로 시작하여 판소리와 창극 작곡에도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으며, (사)청강판소리고법보존회를 개원하여 판소리 고법의 후진 양성에도 힘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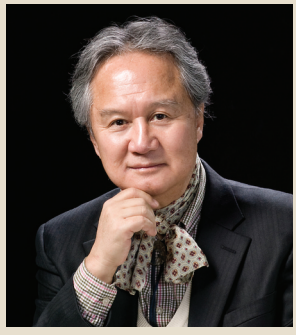
제25회 방일영국악상 수상자 송방송 선생 별세

국악학자이자 방일영국악상 제25회 수상자인 송방송(79세)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8월 1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1988년 한국음악사학회를 창립하여 한국음악사학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고 수많은 후학을 길러냈다.

문헌 연구를 통해 한국음악사학의 체제 정비 및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조선 후기 의궤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궁중 정재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



재단 외부 회계감사에 '대주회계법인'

재단은 지난 9월 '대주회계법인'과 외부 회계감사 계약을 신규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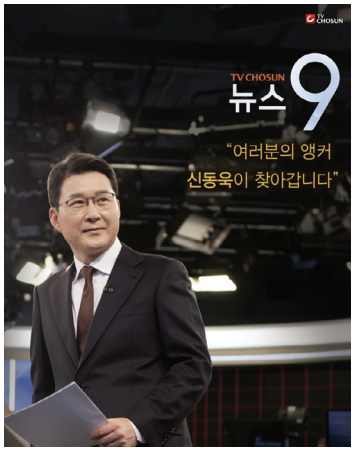
우리 재단은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사항에 의거해 외부 회계감사를 이행해야만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

TV조선 개국 10주년 맞아

국내 방송의 패러다임을 선도

TV조선이 12월 1일로 개국 10주년을 맞았다. TV조선은 개국 10년 만에 종편을 넘어 국내 방송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방송사로 거듭났다. 지난 몇 년간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에서 시작해 '내일은 국민가수'에 이르기까지의 프로그램들은 타 방송사에서 모방할 정도로 판도를 바꿨고, 메인뉴스인 '뉴스9'과 '강적들'을 비롯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역시 신뢰도와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허영만의 백반기행', '마이웨이' 등 교양프로그램도 시청자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은 TV조선에 보낸 축사에서 "지난 10년간 TV조선은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마침내 방송의 새 역사를 쓰게 됐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면서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방송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서중회원 동정

- **3기 마영삼**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사무총장으로 취임
- **3기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 원장으로 취임
- **4기 최성환** 우리기술투자(주) 상근감사에 선임
- **5기 허익범** 특검을 마치고 법무법인 허브의 대표변호사로 옮김
- **7기 최경준** 법무법인 '김장리'로 명칭 변경
- **10기 이영대** 특허법인 '인벤싱크' 대표 변리사로 옮김
- **11기 우병현** 조선비즈 상무에서 아시아경제 미래전략위원장으로 옮김
- **14기 서정민** 한국은행 전산정보국장으로 이동
- **15기 이수희** 케이그라운드벤처스(유한) 파트너로 옮김
- **17기 정익상** 김&장에서 안진회계법인 법무실장으로 옮김
- **17기 신정호** SK Digital 투자센터장에서 (주)시그넷이브이 대표이사로 선임
- **18기 이동혁** 스포츠조선 이사에서 제이더블유홀딩스 상무로 옮김
- **24기 성정민** 맥킨지&컴퍼니(상해) 중국연구소 소장
- **24기 이상덕** 원주지원 판사로 이동
- **25기 정용웅** 옷깃(주) 대표이사 취임
- **38기 김민석** 법무법인(유한)광장으로 옮김
- **38기 이담은**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 사무관으로 이동
- **39기 김원준** 김&장 법률사무소 입사
- **39기 권영서** 법무법인(유한) 동인으로 옮김
- **40기 안연재** 김&장 법률사무소 입사
- **40기 박원진** 포스코 입사

서중회 10기 회원 익명으로 재단에 1천만 원 기부

이름을 알리지 말아 달라며 우리 재단에 1천만 원을 기부한 서중회원이 있다.

지난 7월 재단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며 전화를 해온 이 회원은 이름을 밝히자는 재단 사무국의 뜻을 거부하며 서중회 10기까지만 알리기를 허락했다.

"6년 전에도 재단에 기부한 바 있지만 매년 기부하지 못해 아쉬웠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일정 금액을 방일영문화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원은 지난 2016년 작고하신 부친의 유훈에 따라 1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재단은 이 기부금을 내년도 장학 목적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사용할 계획이다.

2022년 졸업 예정 방일영장학생 진로

- **오재윤(42기)** 연세대 로스쿨 진학
- **조민기(42기)** 채널A 입사
- **김성진(43기)** 포스코 입사
- **안현균(43기)** 크레디 아그리콜 은행 입사
- **이명원(43기)** 서울대 로스쿨 진학
- **박열음(44기)** IT계 스타트업 입사
- **이승엽(45기)** 중앙대 로스쿨 진학
- **문지선(46기)** 서울대 로스쿨 진학
- **이정민(46기)** 서울대 로스쿨 진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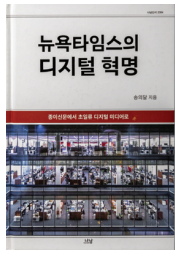
서중회비 납부안내

서중회비 납부 바랍니다

서중회원 여러분, 2022년도 연간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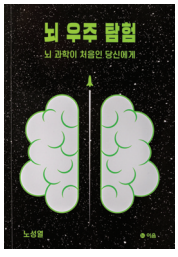
♣ 대상은 서중회원 중 졸업 후 5년차 이상 되시는 분입니다.
♣ 회비는 연간 10만 원입니다.
♣ 보내실 통장은 신한은행 110-362-284657로 예금주는 총무인 '김영철' 입니다.
송금 시 성함과 기수를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경조사 시 30만 원이 지급되오니 총무 김영철(010-3503-921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ew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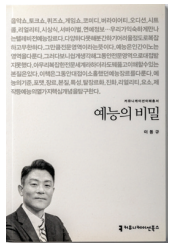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혁명(송의달 지음)

1851년 창간 이후 100여 년 동안 뉴욕 시내에서 변방의 신문 뉴욕타임스가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이 된 과정과 힘을 분석하고 정리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성공의 전략과 노력, 위기 극복 사례 등을 집중 조명한다. 나남. 2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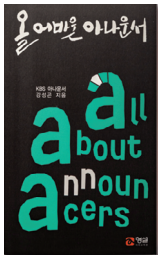
뇌 우주 탐험(노성열 지음)

거시적 뇌에서 미시적 신경세포의 구석구석까지 뇌 지도를 통해 살펴본 미래로 가기 위한 안내서. 태아부터 노년기까지 뇌의 발달-성장-노화-퇴화를 따라가는 시간여행. 기초 뇌 과학부터 AI로 이어지는 미래 과학여행까지 탐험한다. 이음. 18,000원



예능의 비밀(이동규 지음)

TV 예능은 버라이어티, 음악, 연예, 토크, 코미디 등 장르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장르의 의미, 기준, 특성, 역사, 요소 등 예능에 대한 모든 것을 제작현장의 원리와 학문적 이론을 접목해 정리한다. 커뮤니케이션북스.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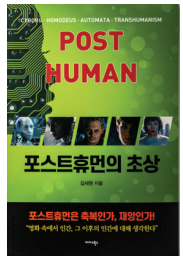


올어바웃 아나운서(강성곤 지음)

아나운서 시작 단계부터 이들이 하는 일,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다룬다. 아나운서가 갖추어야 할 자질, 조건, 특징을 짚어보고 채용 시험 및 트레이닝 과정, 근무환경 등 아나운서로서 갖춰야 할 직업적 양태를 조망한다. 형설. 15,000원

세상의 거의 모든 댕댕이(박상철 지음)

세계 주요 견종 101마리를 세밀화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특징적인 글로 소개한다. 기존의 백과사전식 도감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사진과 건조한 설명과는 달리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흥미롭고 유머러스한 글과 정보를 담은 일러스트북. 그림. 15,000원



포스트휴먼의 초상(김세원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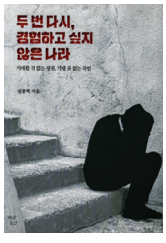
전통적인 인간상을 다룬 기존의 철학과 포스트 휴머니즘 철학을 비교해 보고 인공지능, 리플리컨트, 사이보그, 복제인간, 로봇 등 SF영화에 등장하는 탈 인간적 존재들을 살펴 미래 인간의 조건에 대해 생각한다. 미다스북스. 17,000원

이PD의 방송국 탐구생활(이수연 지음)

25년 차 뉴스 PD인 저자가 PD, 기자, 아나운서, 카메라맨 등 흔한 직종 이외에 방송국 내 숨은 직업의 세계를 소개하고 이들의 고군분투기를 이해함으로써 방송국 취업 희망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꿈틀. 13,000원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미래다(박진현 지음)

지금은 도시브랜드가 국가브랜드보다 더 주목되는 시대. 그중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도시 브랜딩의 미래로 주목받는다. 우리나라는 광주, 부천, 부산, 전주, 통영, 원주, 이천, 진주, 대구, 서울 등 10개 도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도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엔터. 15,000원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김종혁 지음)

정의를 앞세워 사람들의 선의를 악용하고 자신들에 대한 특권은 당연시하는 586 귀족 진보의 무능과 위선, 그리고 종북의 민낯을 공개한다. 또 대한민국의 주류임을 자임해왔던 보수가 진보에 패한 이유를 성찰해 본다. 백년동안. 15,000원

마지막 황제 푸이와 다섯 여인(구자룡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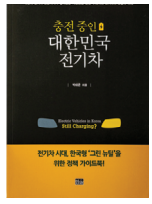
중국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의 행적을 찾아 현장을 스케치하는 형식으로 복원하고, 그의 가족 증언을 더해 재구성한 푸이의 60년 인생. 세 살배기 황제에서 출궁, 감옥생활, 베이징 시민의 삶, 다섯 번째 결혼, 사망에 이르기까지 굴곡진 그의 삶을 그린다. 오카시오. 16,000원

new books

new books

충전 중인 대한민국 전기차(박태준 지음)

10년간 전기차 취재를 해온 저자가 지금까지 전기차 보급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정책이 산업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 한국 전기차 산업계 행보와 정부 정책을 되짚어 보고 잘못을 분석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다룬다. 한울. 2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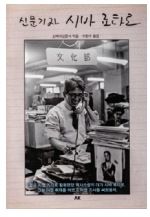


그 노래는 왜 금지곡이 되었을까(이영훈 지음)

한국 가요사에 있어 금지곡의 역사와 왜 금지곡이 되었는지에 대해 심층 분석한다. 아울러 해당 노래를 부른 가수들의 삶과 노래 인생도 담았다. 휴앤스토리. 14,800원

신문기자 시바 료타로(이한수 옮김)

일본 문예춘추사가 출간한 '신문기자 시바 료타로' 의 번역서. 일본 국민 소설가 시바 료타로는 산케이신문 등에서 기자로 일했다. 그의 기자정신을 서술한 이 책은 기자 위상이 추락하고 신문기자의 정신이 혼돈되는 시대의 교훈서. AK. 13,800원



K바이오 트렌드(김병호, 우영탁 공저)

엄청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바이오 산업. 바이오에 대한 개념을 포함해 다양한 바이오 신약들의 효능과 작용기전 등을 설명하여 바이오 분야의 입문자들에게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자 한다. 허클베리북스. 18,000원

스마트폰 하나로 잘 나가는 영상 만들기(이찬휘 외 공저)

스마트폰 하나로 촬영방법, 편집방법, 스토리텔링과 영상 문법, 보이스 트레이닝, 영상제작 진행 요령, 부속장치,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저작권 등 방송연출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스마트폰 영상제작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들녘. 18,000원

장벽의 시간(안석호 지음)

베를린 장벽,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장벽, 미국-멕시코 장벽 등 이들 장벽이 세워지기까지 복잡다단한 분쟁의 역사를 분석하고, 장벽 주변 주민들의 삶과 경제, 문화에 끼친 영향 등을 국제 분쟁 전문기자의 눈으로 실체를 본다. 크레타. 17,000원

빅데이터 분석(정명진 외 공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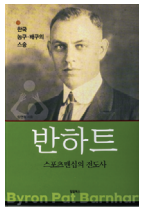
코로나 확진자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 향후 경제회복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경제 시나리오 전망도 짚는다. 청람. 25,000원

선동열 야구학(김식 정리)

1990년대 국보급 투수였던 선동열 선수와 필자가 함께 2020년대 빅데이터 야구를 새로 공부했다. 이 과정을 일간스포츠에 연재했고 이를 보강해 펴낸다. 생각의힘. 15,000원

인물의 그림자를 그리다(최정호 지음)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우리나라의 김수환 추기경 · 이한빈 박사 · 고병익 · 천관우 · 박권상 등, 외국의 발터하겐-그롤 교수 · 바웬사 · 요한 바오로 2세 등 동서양 문화인들의 초상과 담론을 소개한다. 시그마북스. 23,000원



반하트(임연철 지음)

운동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던 1900년대 초에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초츠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YMCA 체육 교사 '반하트' 의 100년 체육사의 발자취를 그린다. 밀알북스. 23,000원

지방이 시작이다(오영환 지음)

저출산 · 고령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문제를 다룬다. 지난 5년간 정권은 이 근본 모순에 대응치 못했고, 관료는 정권의 종합 싱크탱크 기능도 못했다.

이에 관련 대책을 조명하고 '과제 선진국'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움직임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영남대 출판부. 18,000원

new books

방일영문화재단